

신인철학의 사회력사관의 진보성과 제한성

주체 101(2012)년 9월 3일
조선대학교 박명

신인철학은 1920 년대에 리돈화(호는 야퇴, 두암 1884~1950)에 의하여 제기된 조선근대철학조류의 하나이다. 천도교의 교리를 리론적으로 정립하고 철학적으로 해석한 신인철학은 우주관, 인생관, 사회관, 개벽관, 도덕관으로 이루어져있다.

1. 신인철학의 사회력사관의 진보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상의 혁명성은 그것이 인간의 자주성을 얼마나 견결히 옹호하고 그 실현을 위한 길을 얼마나 과학적으로 밝혀주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됩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 신인철학의 사회력사관의 진보성은 첫째로, 인간의 존중과 평등, 민족적독립과 민족적평등이 실현된 지상천국에 관한 사상을 제기함으로써 피착취인민대중과 식민지나라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준데 있다.

△ 착취사회의 불합리성을 폭로

- 사회질병설

- 3 대해악(생리적해악, 정신적해악, 권력적해악)

- 민족리기주의와 민족배타주의 반대, 민족적독립과 민족적평등 주장

△ 사회질병을 극복한 사람본위의 사회제도, 민족적독립과 민족적평등이 실현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것을 주장, 인류의 세기적념원인 리상사회가 래세에서가 아니라 현실사회에서 건설된다는것과 그것은 가까운 시기에 실현된다는것을 주장

- 민족개벽에서 우선 매개 민족을 단위로 하여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그 다음에 점차 민족들사이의 차이를 없애나가면서 민족적평등과 세계의 평화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 민족개벽이 된 다음에는 의식주와 같은 경제적문제를 해결하고 그 토대우에서 사람의 본성을 되찾아 그것을 더욱 완성시키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저해하는 낡은 제도를 사람본위의 제도로 혁신하는 사회개벽으로 나가게 된다

- 지상천국

- 《후천개벽》

△ 이상사회건설을 위한 방도를 추상적이거나 제시, 일련의 긍정적인 견해들을 제기

- 정신적해악의 해탈, 생리적해악의 해탈, 권력적해악의 해탈

- 《후천개벽》의 순차 : 정신개벽→민족개벽→사회개벽

3 대개벽과 이상천국건설을 위한 투쟁의 형태와 수단, 방법 : 삼전론(언전, 재전, 도전)

- 인민대중이 노는 역할을 중시하고 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주장, 인간의 활동에서 정신, 사상의 역할을 강조, 집단주의적요소를 가진 전체를 위한 도덕을 강조

2) 신인철학의 사회력사관의 진보성은 둘째로, 인간격중심의 사회력사원리와 사회력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론들을 내놓음으로써 신비주의적사회력사관을 극복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는데 있다.

△ 사회력사원리로서의 《사람성자연》에 관한 이론

《사람성자연》~ 사람과 자연, 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의식체가 자기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력사를 구성하며 사회가 인간격극치를 향하여 부단히 발전한다는 원리

△ 사회의 본질에 대한 견해

- 사회는 《자연히 일러진 일종의 유기체》, 사회의 구성요소는 개인과 그들의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적집단

- 개체본능과 자연세력이 결합되어 사람성능물이 되고 사람성능물과 사람성능물총화가 결합되어 사회기능이 되며 사회기능과 사람성능물이 결합되어 사람성자연을 구성한다

△ 사회의 변화발전에 대한 견해

- 사회가 자체의 필연적능동성에 의하여 역사적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한다

- 사회발전에서 나타나는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변증법적련관, 새로운 시대의 창조는 낡은 시대의 사회적모순을 깨닫고 그 극복을 위한 신시대창조의 정신을 가지게 될 때 이룩된다

-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지식에서 나오며 새로운 지식은 반항에서 나온다

- 사회가 인간격극치를 향하여 부단히 발전한다
인간격 ~ 한울의 발전수준, 발전상을 나타내는 개념
인간격의 극치 ~ 한울의 본성을 인간사회에서 전면적으로 구현되게 한다는 것

3) 신인철학의 사회력사관의 진보성은 셋째로, 유교와 불교, 도교와 그리스도교를 비롯한 선행종교들의 허황성을 폭로비판하고 타격을 준 데 있다.

△ 선행종교들이 현실과 떨어진 신비주의와 래세주의, 의타적성격을 가진다고 폭로

△ 특히 신인철학은 유교와 불교가 역사적으로 조선에서 미친 해독성에 대하여 폭로비판

2. 신인철학의 사회력사관의 제한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도교는 그 계급적제한성과 리론실천적미숙성으로 하여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주도적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하였다.》

1) 신인철학의 사회력사관의 제한성은 첫째로, 과학적인 세계관에 안받침되지 못하고 자연과 사회의 차이를 모호하게 만들었으며 사회력사에 대한 일면적이며 신비주의적인 리해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 신인철학의 세계관

- 지기일원론
- 무위이화법칙

△ 범신론적세계관을 사회력사에 그대로 적용

- 사람도 사회도 다같이 지기의 진화의 산물이며 자연의 운동과 사회의 운동도 다같이 무위이화법칙에 따라 통일적으로 지배되면서 나타난다
- 사회력사에 대한 일면적인 리해

2) 신인철학의 사회력사관의 제한성은 둘째로, 사회발전법칙에 부합된 과학적인 목표와 투쟁방도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 민족개혁, 사회개혁에 앞선 정신개혁을 주장

△ 《광제창생》, 3대해악의 제거를 위한 방도

△ 《포덕천하》, 《오심즉여심》

3) 신인철학의 사회력사관의 제한성은 셋째로,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제국적본질과 악랄성, 교활성을 옳게 못보고 제국투쟁을 차요시하는 제국적취약성을 가진다.

△ 사회질병의 근본원인 : 사람들이 한울아를 망각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정신적결함

△ 삼전론

※ 총체적으로 신인철학의 사회력사관은 애국, 애족, 애민적인 지향을 가지고 일정하게 긍정적요소를 내포하면서도 그 이론과 실현방도에서 과학적이지 못한 사회력사관이고 사회변혁론이다.